

잡아함 9 염리경

날짜: 10월 17th, 2023

출처: <http://www.dhamma.kr/wp/?p=17498>

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.

어느 때 부처님께서 사위국 기수급고독원에 계셨다.

그때 세존께서 모든 비구들에게 말씀하셨다.

“색은 무상하다.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, 괴로움은 곧 나[我]가 아니며, 나가 아니면 또한 내 것[我所]도 아니다.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 한다. 이와 같이 수 · 상 · 행 · 식 또한 무상하다. 무상한 것은 곧 괴로움이요, 괴로움은 곧 나가 아니며, 나가 아니면 또한 내 것도 아니다. 이렇게 관찰하는 것을 진실한 바른 관찰이라 한다.

거룩한 제자들아, 이렇게 관찰하면 그는 곧 색을 싫어하고, 수 · 상 · 행 · 식을 싫어하게 되며, 싫어하기 때문에 즐거워하지 않고, 즐거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탈하게 된다. 해탈하면 진실한 지혜가 생기나니, 이른바 ‘나의 생은 이미 다하고 범행은 이미 섰으며, 할 일은 이미 마쳐 후세의 몸을 받지 않는다’고 스스로 알게 된다.”

그때 모든 비구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하며 밭들어 행하였다.

본 문서는 dhamma.kr에서 수집한 내용입니다.